

제78호(2013. 11. 19.)

##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

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1. 2013년 김장 수요 전망 .....	3
2. 주요 김장채소의 생산 및 가격 전망 .....	6
3. 금년 김장의 특징과 시사점 .....	11
부록: 2013년 소비자 가구의 김장 수요 조사 결과 .....	12

감 수: 박동규 선임연구위원 02-3299-4314 dgpark@krei.re.kr  
내용 문의: 서대석 부연구위원 02-3299-4260 dssuh@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요약 ◇

금년 소비자 가구의 김장 수요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김장철 배추·무 등 엽근채소류와 고추·마늘 등 양념채소류의 공급량 모두 이례적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지난 10월 하순에 실시한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조사 결과, 올해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이 59.3%로 작년의 53.6%보다 6%p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친지 또는 지인’을 통해 김장김치를 조달하는 가구의 비중은 32.1%로 작년 37.8%보다 6%p 감소하였고, 시판 김치 구입 가구의 비중은 8.6%로 작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4인 가족 기준으로 금년 김장배추 구입 포기수는 24.7포기로 작년의 20.6포기보다 4포기 많고, 구입할 무는 10.3개로 작년의 8.6개보다 1.7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김치를 가져올 양은 작년과 비슷한 18.1포기로 조사됨.

금년 김장 시기는 작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됨. 서울·경기와 충청 등 중서부 지역의 김장 시기는 11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경향이 두드러지고, 영남 지역은 12월 상순 비중이 가장 높으나 11월 하순 비중도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금년에 추위가 일찍 올 것이라는 기상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로는 김장 과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절임배추’ 선호도가 작년보다 2%p 증가한 41%로 나타났음. 시판 김치의 구매 비중은 작년과 비슷한 8.6%로 조사됨.

금년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의 생산량과 공급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15%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김장철 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낮고 평년보다 1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금년 김장비용은 가격이 높았던 작년보다 40% 내외, 평년보다 20% 내외 저렴할 전망이다.

소비자의 수요는 증가하나 김장 시기는 10일 이상 앞당겨지고, 가을작형 출하량이 많은데다 월동작형의 생산량 및 조기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12월 이후 공급과잉 심화의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자율적 출하 조절과 출하시기 조절, 저위품 출하 자제, 정부의 시장 격리 및 수요 증대 대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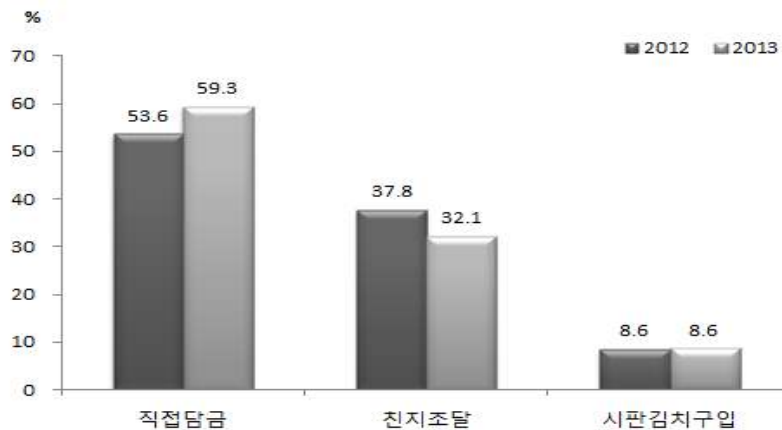
## 1. 2013년 김장 수요 전망

- 올해 전체적인 김장 수요는 작년보다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김장 성수기는 작년보다 10일 이상 빠를 것으로 전망됨
  - 10월 하순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을 통해 금년 김장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 비중과 배추 구매량이 작년보다 많고, 김장을 담그는 시기도 작년보다 이를 것으로 나타남

□ 금년 김장을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은 60%, 4인 가족 기준으로 김장 포기수는 24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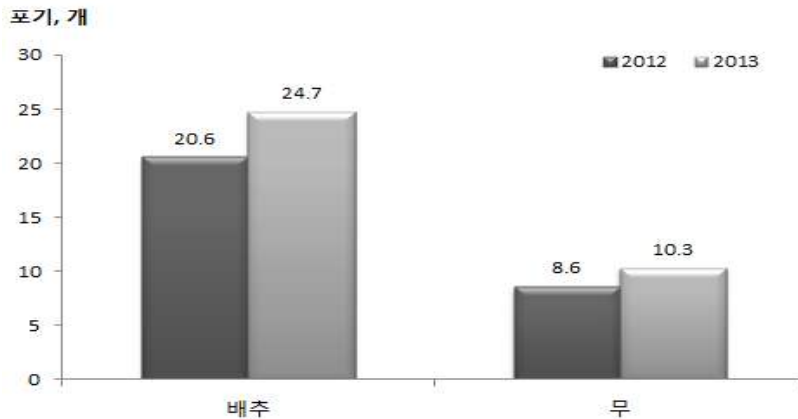
- 2013년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의 비중은 59.3%로 작년 53.6%에 비해 5.7%p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부모님이나 지인’을 통한 조달 가구 비중은 32.1%로 작년보다 6%p 감소, 시판 김치 구입 의향은 8.6%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

그림 1. 김장김치 조달방법별 가구 비중



- 올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는 배추 포기수는 4인 가족을 기준하여 24.7 포기로 작년의 20.6포기보다 4.1포기 증가하였고, 무는 10.3개로 작년의 8.6개보다 1.7개 많을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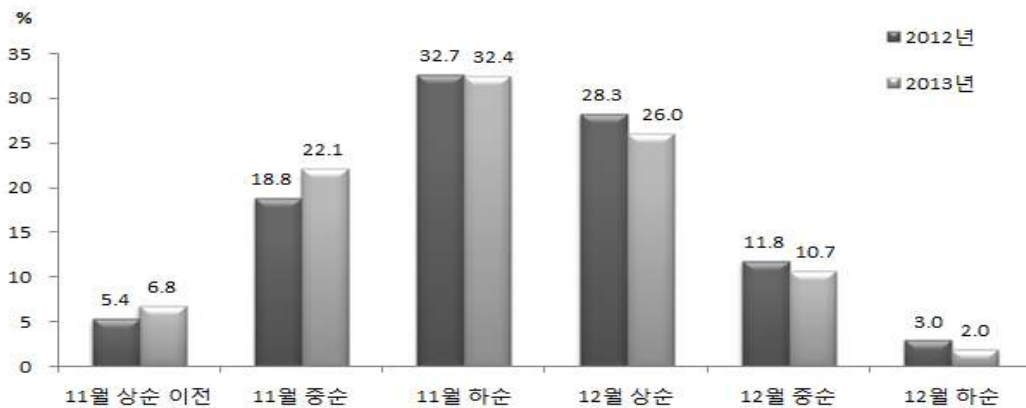
그림 2. 김장배추·무의 구입 의향



□ 올해 김장 성수기는 작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질 전망

- 금년 김장 시기는 작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질 전망으로 11월 하순이 32.7%로 가장 많고, 작년의 32.4%와 큰 변화는 없음
  - 그러나 11월 중순에 김장을 담그려는 비중이 22.1%로 작년의 18.8%보다 3.3%p 증가한 반면에, 12월 상순의 비중은 26.0%로 작년의 28.3%보다 2.3%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또한 11월 상순 이전도 작년보다 1.4%p 증가한 반면, 12월 중순 비중은 약 1%p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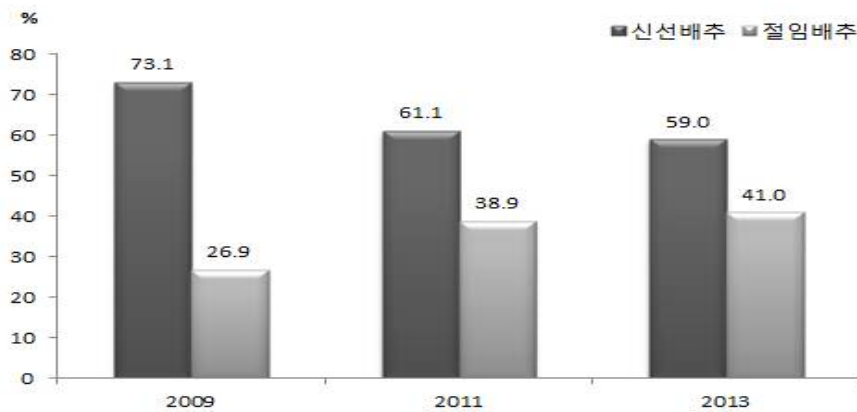
그림 3. 금년과 작년 김장 시기 비교



## □ 절임배추 선호도는 작년보다 3%p 증가 추세

- 김장김치 주재료인 배추의 형태별 선호도는 ‘신선배추’가 59.0%, ‘절임배추’는 41%로 ‘신선배추’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절임배추’의 선호도는 2009년 26.9%, 2011년 38.9%, 2013년 41.0%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그림 4. 김장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 2. 주요 김장채소의 생산 및 가격 전망

- 금년 김장철 배추와 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25% 내외, 고추는 10%, 마늘은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과 같이 김장철에 주요 채소류 공급량이 모두 많은 것은 이례적임. 따라서 김장철 주요 채소류 도매가격은 가격이 높았던 작년보다 30% 이상, 평년보다는 1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1. 가을배추·무의 생산 및 가격 전망

□ 금년 가을배추·무의 생산량은 평년보다 각각 13%, 4% 증가

- 2013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5,095ha로 작년보다 13%, 평년보다 6% 증가하였고, 현재 작황은 매우 양호하여 예상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164만 톤으로 생산량이 적었던 작년보다 27%, 평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 2013년 가을배추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3		15,095	10,892	1,644
2012		13,408	9,681	1,298
평 년		14,232	10,272	1,462
증감률	작년 대비	12.6	12.5	26.7
	평년 대비	6.1	6.0	12.5

자료: 통계청, 2013년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3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7,532ha로 작년보다 10% 증가하나, 평년보다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작황은 매우 양호하여 예상 단수는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1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금년 가을무 생산량은 62만 톤으로 생산량이 적었던 작년보다 25%, 평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2. 2013년 가을무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3		7,532	8,272	623
2012		6,826	7,324	500
평 년		8,064	7,437	600
증감률	작년 대비	10.3	12.9	24.6
	평년 대비	-6.6	11.2	3.9

자료: 통계청, 2013년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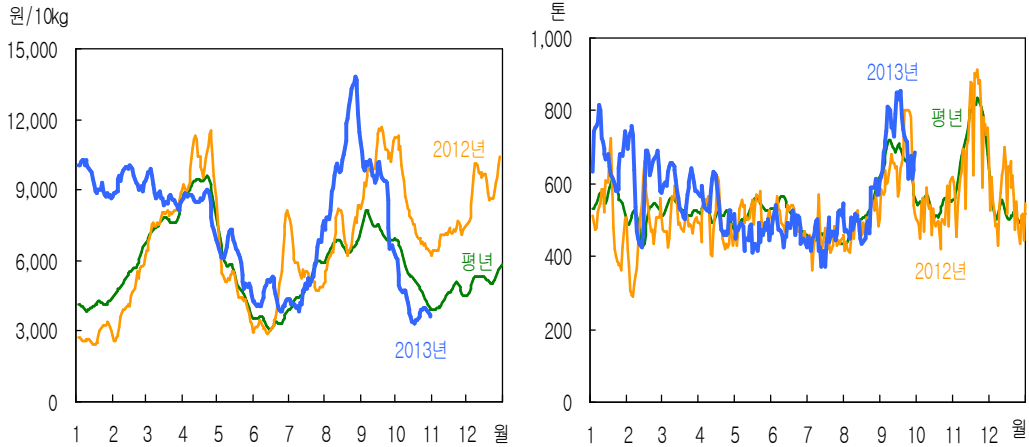
#### □ 김장철 배추, 무의 출하량은 평년보다 각각 10% 내외 많을 전망

- 11~12월 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25%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가을배추 재배면적 증가 및 기상 호조로 작황이 매우 양호하여 11~12월 출하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5%, 10% 내외 증가 전망
- 12월 하순 이후 출하될 겨울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 및 단수 증가로 출하량이 적었던 작년보다 42% 내외, 평년보다 15% 내외 많을 전망
- 가을무 생산량 증가로 11~12월 가을무 출하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0%, 10% 내외 많을 전망
- 12월에 출하될 월동무 출하량은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다소 적으나 작황이 좋아 작년보다 20%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김장철 배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5%, 10% 이상 낮은 상품 10kg(3포기)당 4,000원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됨. 무 도매가격도 물량이 많아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0%, 10% 이상 낮은 상품 18kg당 8,000원 이하로 전망됨

그림 5. 배추, 무의 도매가격 동향

< 배추 >

< 무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8~2012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김장철 양념채소 가격은 10월 평균가격 대비 약보합세 전망

- 금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10% 많은 11만 4,000톤 전망 - 금년산 건고추 10a당 전체 수확량은 전년보다 10% 많은 252kg으로 조사됨. 정식기(4~5월) 이후 기상이 양호하여 초기 수확량이 많았음.

표 3. 2013년산 건고추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톤, %

구 분		면적	단수	생산량
2013		45,360	252	114.3
2012		45,459	229	104.1
평년		44,953	232	104.3
증감률	작년 대비	-0.2	10.1	9.8
	평년 대비	0.9	8.7	9.6

주: 2013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11~12월 전체 고추 수입량은 국산 고추 가격 약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18,800톤)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 말 기준 정부 비축물량은 5,551톤(국산 3,178톤 포함)이고, 11월 상순까지 국산 건고추 목표 수매량(5,800톤 이내) 모두 수매 계획
- 수입이 감소하나, 금년산 생산량과 이월 재고량이 많아 김장철 고추 공급량은 작년이나 평년 동기보다 15% 내외 많을 전망
- 김장철 화건 상품 600g당 도매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금년 10월 도매가격(6,890원)보다 약간 낮아 작년 동기(10,150원)에 비해 30%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산 건고추 수매·비축이 11월 상순에 완료되고, 농가 출하량이 늘면서 김장철 가격은 10월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
  - 김장철 이전 건고추(고춧가루) 구입 비중이 60% 이상으로 소비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고, 현재 가격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하락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2013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22%, 25% 많은 41만 2,000톤으로 국내 평년 생산량보다 약 8만 3,000톤이 많음
  - 최근 몇 년간 농가수취가격 상승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수확기 기상 여건이 좋아 단수가 크게 증가
  - 한지형 마늘 생산량은 전년, 평년보다 각각 17%, 29% 많은 6만 톤, 난지형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2%, 24% 많은 35만 2,000톤

표 4. 2013년산 마늘 생산량

단위: ha, kg/10a, 톤, %

구 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3		29,352	1,405	412,250
2012		28,278	1,199	339,113
평년		25,928	1,272	329,700
증감률	작년 대비	3.8	17.2	21.6
	평년 대비	13.2	10.4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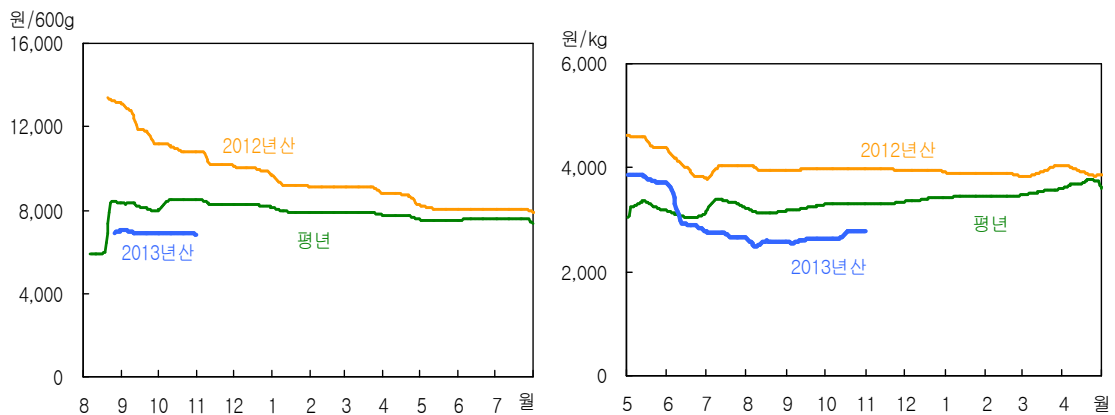
주: 평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 품종별 합계임.  
자료: 통계청.

- 2013년산 마늘 수입량은 냉동마늘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많은 수준임
  - 5~10월 신선마늘로 환산한 수입량은 약 2만 9,000톤으로 전년(24,180톤) 및 평년 동기(26,595톤)보다 각각 19%, 8% 증가
- 2013년산 마늘 저장량은 평년보다 2~3만 톤 가량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12,205톤은 정부가 수매·비축하고 있음. 정부 수매량은 연내 방출되지 않을 계획임
  - 10월까지 마늘 출고량은 간마늘용 중심으로 전년보다 6% 많고, 재고량은 전년보다 26% 많은 것으로 추정
- 금년 김장철(11~12월) 마늘 상품 kg당 도매가격(5대 도매시장)은 국내산 마늘 저장량 증가 등으로 전년(3,957원) 및 평년 동기(3,355원)보다 15%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됨
  - 11~12월 상품 kg당 마늘 도매가격은 전년, 평년보다 낮고, 10월 하순(2,780원/kg)과 비슷한 보합세 전망

그림 6. 건고추,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

< 건고추 >

< 난지형 마늘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건고추 평년 가격은 2007년 8월~2012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이며, 난지형 마늘 평년 가격은 2008년 5월~2013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 금년 김장의 특징과 시사점

- 올해 소비자 가구의 김장 수요 증가를 고려한 전체 김장 수요는 작년보다 10% 내외 증가하고, 주요 김장채소류의 생산량과 공급량은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김장철에 양념채소류와 엽근채소류 모두 과잉공급인 경우는 이례적임
- 김장철 주요 채소류의 과잉공급에 따라 금년 소비자 가구의 김장비용은 작년보다 40% 내외, 평년보다 20% 내외 저렴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고추와 마늘 등 양념채소류를 수확기에 미리 확보한 소비자 가구는 김장비용이 전망 수준보다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겨울배추와 월동무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조기 식재된 물량의 조기출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가구의 김장 시기가 10일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12월 이후 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김장 채소류에 대한 생산자단체 및 유통인의 자율적인 출하 조절, 저위품 출하 자제, 조기수확 및 분산출하 등의 노력이 요구되며, 정부의 수요 확대 방안과 시장격리 대책의 선제적 대응 등 다방면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김장철에 집중되는 절임배추의 위생관리 대책이 중요하며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품질 개선이 필요함. 절임배추와 같은 다양한 수확 후 관리 및 전처리와 더불어 소비자의 김장 후 쓰레기 등을 줄일 수 있는 후처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 부록: 2013년 소비자 가구의 김장 수요 조사 결과

### 1.1. 조사 개요

- 2013년 김장 수요 조사
  - 조사 기간: 2013년 10월 24~10월 29일(6일간)
  -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1,000명
  - 조사 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pm 3.64\%$ (95% 신뢰 수준)
  
- 응답자 인구통계적 특성
  -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응답자가 434명(60.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남 170명(23.5%), 충청 50명(6.9%), 호남 49명(6.8%) 순
  -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17.7%, 40대 47.2%, 50대 29.7%, 60대 이상은 5.4%

### 1.2. 조사 결과

#### □ 금년 김장 의향조사 결과에서 소비자의 김장 수요는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가 직접 김장을 담그는 가구 비중과 배추 포기수는 작년보다 증가하고,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져다 먹는 비중은 감소하며, 시판 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 올해 배추, 무, 고추(고춧가루)와 마늘 등 주요 김장채소 생산량이 많아 김장철 가격이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소비자 가구의 김장 의향을 조사하였음. 김장철 주요 채소 전망 가격을 제시하고, 김장량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약 90%의 가구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담글 것으로 조사됨
  - ‘작년보다 많이 담글 것이다’가 36.7%, ‘작년과 비슷하게 담글 것이다’가 52.9%, ‘작년보다 적게 담글 것이다’는 10.4%

## 부표 1. 작년 대비 김장 의향 변화

단위: %

많이 담글 것이다	약간 많이 담글 것이다	비슷하게 담글 것이다	약간 적게 담글 것이다	적게 담글 것이다
12.7	24.0	52.9	8.8	1.6

## 가. 소비자 가구의 김장 김치 조달 방법

## □ 가구원수가 많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접 담그는 비중 높아

-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친지에게서 가져오거나 시판 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표 2. 가구원수별 김장김치 조달 방법

단위: %

구 분	직접 담금	친지에게서 가져옴	시판 김치 구매
2인 이하 가구	51.1	36.2	12.7
3인 가구	55.3	33.7	11.0
4인 가구	60.9	32.1	7.0
5인 이상 가구	67.0	26.9	6.1
계	59.3	32.1	8.6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직접 김장김치를 담기보다는 주로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가져다 먹는 비중이 높고(58.5%), 50대 이상은 직접 김장을 담그는 비중이 7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어 50대 이상의 가정은 대부분 직접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0대 가구는 59.2%의 가정이 직접 김장을 담글 것으로 조사되어 평균값과 비슷한 수준임
- 시판 김치 구매 비중은 30대 이하는 10%, 40대 이상의 가구는 9%인 것으로 나타남

### 부표 3. 연령대별 김장김치 조달 방법

단위: %

구 분	직접 담금	친지에게서 가져옴	시판 김치 구매
30대 이하	31.8	58.5	9.7
40대	59.2	32.5	8.3
50대	73.9	18.5	7.6
60대 이상	69.5	18.6	11.9
계	59.3	32.1	8.6

#### □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가져오는 김장 수요량은 작년과 비슷

-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김치를 가져오는 양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남. 금년 조달량은 18.7포기로 작년의 18.1포기보다 0.6포기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김치를 친지로부터 조달하는 이유는 ‘맛이 좋고, 가족 입맛에 맞아서’가 3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거나 바빠서’가 20.0%, ‘원료 원산지를 알 수 있고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가 19.1%로 조사됨. 이는 소비자 가구의 김장김치 맛에 대한 기호와 안전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김치를 조달하는 ‘부모님이나 친지(지인)’의 거주지는 50.1%가 도시지역이고, 49.9%는 농촌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조달원의 거주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나. 지역별 김장 시기

##### □ 중서부 지역의 김장 성수기는 11월 하순, 영남은 12월 상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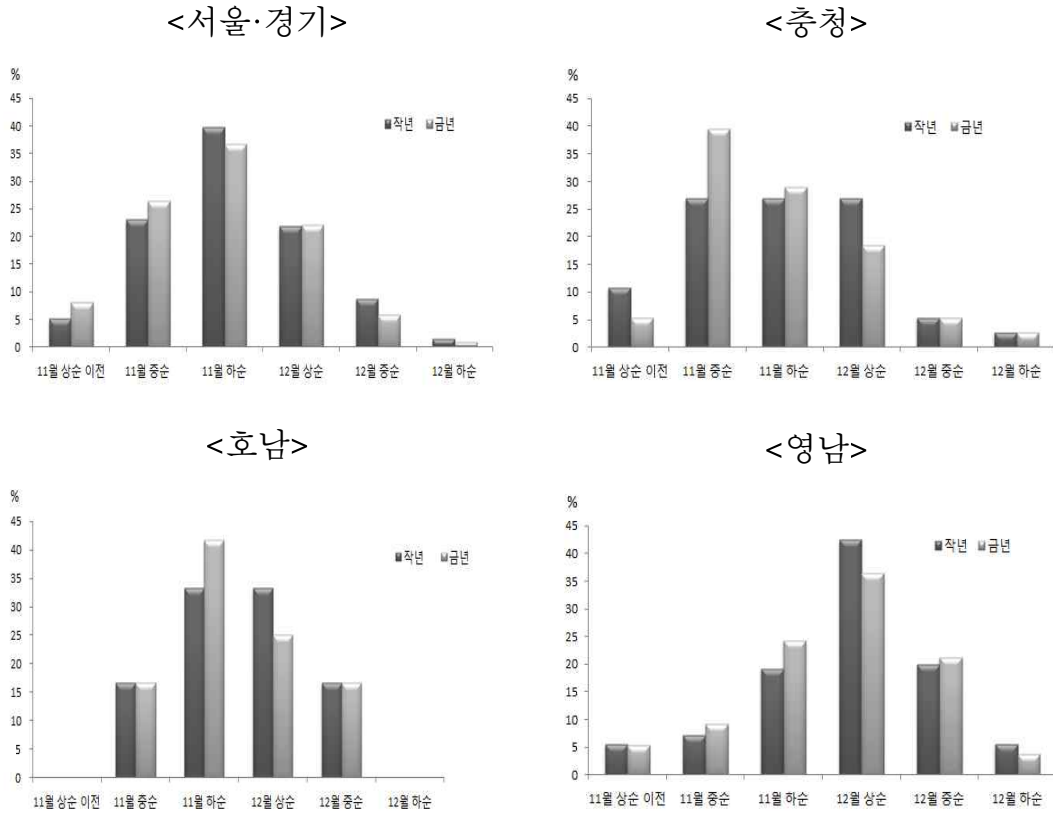
- 지역별 김장 시기는 중서부 지역이 11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경향이 두드러지고, 영남 지역의 경우 12월 상순 비중이 가장 높으나 11월 하순



비중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금년에 추위가 일찍 올 것이라는 기상청 날씨 전망에 따라 김장을 서두르려는 소비자들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부도 1. 지역별 김장 시기 비교



#### 다. 김장용 배추의 구매형태별 선호도

□ 김장철 신선배추를 산지에서 직접 조달하는 비중은 약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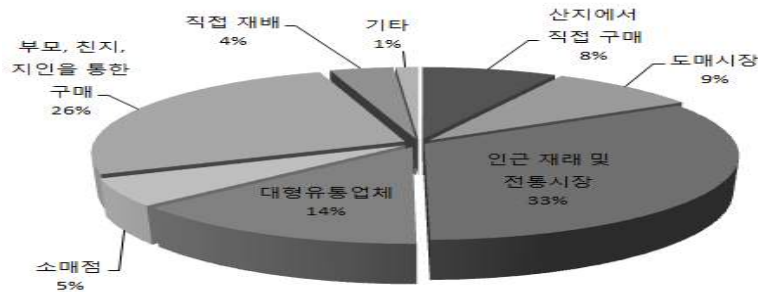
- 김장철 신선배추를 구입하는 곳은 ‘인근 재래 및 전통시장’이 32.9%, ‘도매시장’이 8.8%, ‘소매점’이 5.3%로 전통 유통경로를 통한 비중이 47.0%로 나타났다. ‘대형유통업체’ 비중은 13.7%로 나타나 전체의 60.7%가 유통채널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모님이나 친지’

로부터 구하는 비중은 26.0%, ‘산지에서 직접 구매’가 7.9%, ‘직접 재배’가 3.8%로 나타나 약 38% 정도는 유통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산지를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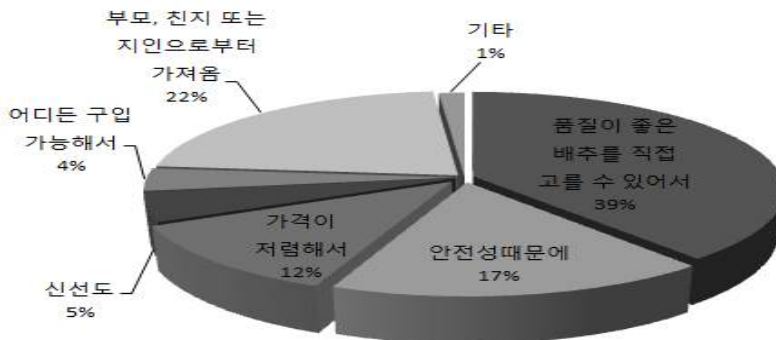
□ 신선배추 선호 이유는 ‘품질이 좋은 배추를 직접 고를 수 있음’이 큰 비중

○ ‘신선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는 ‘품질이 좋은 배추를 직접 고를 수 있어서’가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져옴(구매 포함)’이 21.9%, ‘안전성 때문에’가 17.3%로 나타나 신선도,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직접 고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대부분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도 2. 신선배추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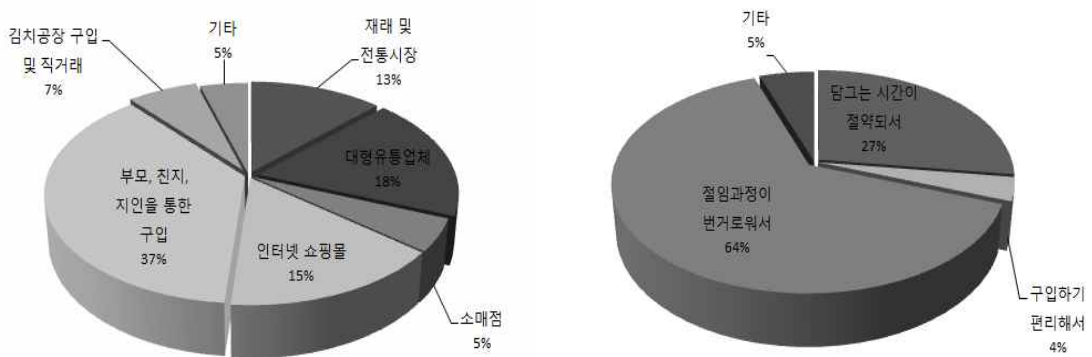
부도 3. 신선배추 선호 이유



□ 절임배추 구입처 ‘친지, 지인’과 ‘대형유통업체’ 비중 높고,  
절임배추 선택 시 ‘절임과정의 번거로움’과 ‘시간 절약’ 중시

- 김장철 절임배추를 구입하는 경우 ‘부모, 친지, 지인을 통한 구입’이 3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형유통업체’가 18.4%, ‘재래 및 도매시장’이 12.6%,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중도 15.5%로 조사됨
- 소비자가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이유로 ‘절임 과정이 번거로워서’가 64.0%, ‘담그는 시간이 절약되어서’가 27.2%인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등 주거 형태 변화에 따라 절이는 과정이 번거롭고 쓰레기를 유발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임배추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도 4. 절임배추 구입처 및 선호 이유



□ 금년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10kg당 16,000원 내외

- 금년 김장철 대형할인점의 절임배추 판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아 10kg 기준 평균 16,000원 내외로 작년보다 2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절임배추 판매단가는 계약물량과 계약시기 등에 따라 판매처별로 차이가 있음
  - 지역농협의 김치공장에서 판매단가는 15,000원 내외로 배추 가격이 비쌌던 작년보다 20% 내외 낮은 것으로 조사

부표 4. 김장철 대형할인점의 절임배추 판매가격

단위: 원/1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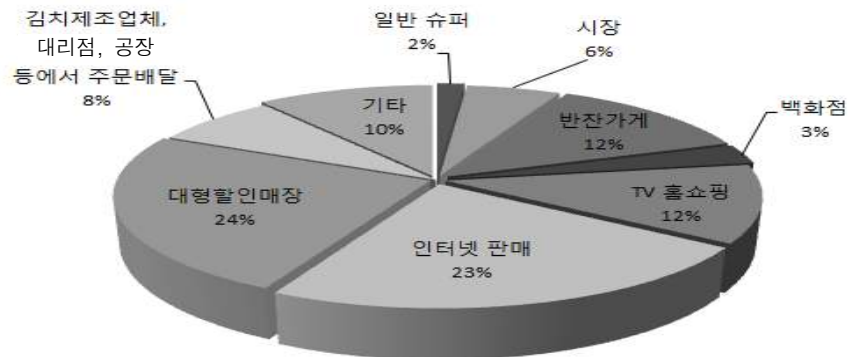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2,450	28,045	13,318	22,000	16,000

주: 2011년까지는 A업체 도매매입단가이고, 2012~2013년은 주요 대형할인점 평균가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조사치.

□ 시판 김치는 주로 대형할인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

- 시판 김치의 주 구입처로 ‘대형할인매장’이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판매’가 23.2%, ‘반찬가게’가 12.4%, ‘TV홈쇼핑’이 11.8%로 조사됨

부도 5. 시판 김치의 구입처



##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 2013년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시장에 미치는 영향(허 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립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영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 (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이현근)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1. 18

발 행 2013. 11. 19

발 행 인 최세균

운영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mailto:munwonsa@hanmail.net)

---

ISBN: 978-89-6013-496-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